

책의 숲 책의 바다

천양희

시인

‘책의 해’를 정하면서까지 책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 책이 사회문제의 하나가 된 것이다.

권장을 거듭하면 강요처럼 느껴지기 쉽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회문제가 생길 때 마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인간을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개조하려고 시도한다.

책의 해를 정한 것도 그렇다. ‘책의 해’라고 정해 놓으면 그것 자체가 한계가 될 수도 있다. 그 한계는 때로 다른 발전을 가져오기 어렵다. 책의 해를 정한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는 보장도 없고, 좋은 책이 출판된다는 보장은 더욱 없다.

책의 해를 정한 첫 의도와는 달리 그것이 반복되면 오히려 행사에 그치고 말 우려도 없지 않다. 책 읽기를 강조하면서 마치 우리들을 경쟁적이고도 야심에 찬 문화적 순종주의자가 되어주길 요구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기도 한다.

올해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수많은 책들이 책의 해를 넘보고 있는 듯 기를 쓰고 쏟아져 나왔다. 기를 쓰듯 쏟아진 책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기막힌 것을 주었는가. 쏟아진만큼 책 공해는 더욱 심해지고 책 속에서 길을 찾기로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길을 찾기는커녕 책 속에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책이 많은만큼 길도 많아서일까. 옛 어른들이 찾았다는 지혜와 슬기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는 분명 지금보다 책의 종류는 빈약했지만 책의 질은 기를 졌다. 책을 숲이나 바다에 비유해서 書林이나 書海란 말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의 책 현실은 어떠한가. 책 숲에서 길을 잃고 책 바다에서 노를 잃는다. 이것이 오늘의 책의 현실이다. 책 종류는 그때에 비할 수없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하지만 내용은 그때보다 훨씬 빈약하고 불품없이 되어버렸다. 오늘의 책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고 옛 책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과대포장 속에서 책의 알맹이는 아주 작아지고 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소리가 크고, 惡書가 良書를 구축한다.

과대광고와 과잉선전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고 좋은 책들이 외면당하기도 했다. 과장이 심한 만큼 誤字도 많고 또 오류를 범한 것도 많다. 역사를 겁없이 왜곡시키기도 하고 시대를 전도시키기도 한다. 우리들은 분명 하강하는 사회질서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사회속에서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인 세계를 찾지 못하고, 도식적이고도 물개인적인 대중의 세계 속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는 입을수록 빨리 벗어내려야 한다. 피해의 옷을 벗겨주어야 할 것은 첫째 사회제도이며 출판인이며 작가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도 자체가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 틈틈이 책 시간을 갖게 해주는 일, 그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식개혁이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출판인들은 책을 팔아 돈을 벌기 전에 좋은 책을 만들어야 하고, 작가들은 유명해지기 전에 좋은 글을 써야 하고, 독자들은 읽기 전에 좋은 책을 볼 수 있는 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 정리될 것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한다. 출판의 사명감 없이 영리에만 급급하는 출판사들도, 작가들이 영혼도 없이 팔아먹겠다고 쓴 책들도, 남이 산다고 따라 사는 독자들의 습관도, 책의 해에 다들 깨끗이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책의 해’ 말고 책이 해처럼 떠오를 수 있었으면..., 우리가 날마다 해를 맞듯이 책을 맞을 수 있었으면...

뉴스	2	“출판산업 경영전략 근본개혁을” 외
표지인물	4	실종의 그물로 건져올린 한국도자의 진실 「한국도자사연구」 펴낸 윤용이교수
시론	6	무림의 영웅들처럼 영고성쇠 거듭하다 — 육홍타 무협지출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전망
서평	8	이정전 「두 경제학의 이야기」 — 전철환 모르네 「프랑스혁명의 지적 기원」 — 최갑수 9 꼬발레프 외 「러시아현대문학사」 — 장 실 양귀자 「슬픔도 힘이 된다」 — 류철균
확대서평	10	모처럼만에 만나는 국제정치학의 역사 — 정영태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외
쟁점	11	성폭행 문제 책을 통해 본격논의된다 문학작품 주요주제로 부각... 법이론 조영 기한 책도
시집서평	12	상실과 상처를 통해 도달하는 황홀경 — 임태우 이 가을의 시집서평
출판화제	14	일본문화 ‘키워드’ 찾는 노력 다양해진다 계몽적 단순소개 뛰어넘는 본격 일본론 연이어 출간
	15	조직 속 개인 위한 직장인 실용가이드 예의범절 인간관계 요령 등 책을 통해 배운다
초점	16	출판유통업계 체질변화 조짐 보인다 일부 도매상 합병 움직임... 일원화 공급 추진도
이 책 그 사람	18	「남대문 앞에서」 낸 김구부씨 「기자를 위해... 컴퓨터」 낸 고규홍씨 19 「번역학개론」 번역한 엄재호씨 「살아남은 자의 슬픔」 낸 박일문씨
해외취재	20	유럽에서 만난 어린이책 세 권 — 김철호 세나라 서점을 둘러보고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다녀와서
해외출판	22	“출판업도 영상매체 영향력 이용해야” — 유은영
세계의 책	24	특파원이 기록한 최전선의 현대사 외 — 배병삼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 / 도서음성정보서비스 / 정기구독안내